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가장 큰 계명

(마 22:34-40)

사두개인들에 이어 바리새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번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35-36절).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 1.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신 6:4-5).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지혜와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피치 못하게 겪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승리를 하나님과의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 2.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한 계명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한 또 하나의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면 그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이웃들, 또한 이방인들 사랑하게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켜 주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Greatest Commandment

(Matt. 22:34-40)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fter the Sadducees, an expert in the law of the Pharisees tested Jesus with this question.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vv. 35-36).

An expert in the law is called a man of authenticity in the law among the Pharisees.

### 1. The greatest and first commandment

Jesus said that the first commandment i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e content of this scripture has been known by Jewish people (Deut 6:4-5). What is the love with all heart? This means with all of your strength, and life. Jesus Christ, the son of God, first of all, loved us before he has been crucified on the cross. To love such a wonderful God with all our heart, and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our life becomes the greatest joy, happiness, strength, wisdom, and victory for us. While we live in the world, God wants to give us the power, wisdom, and victory to overcome suffering and hardship through his strong love.

### 2.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just like the first

The other important commandment just like the first is “Love your neighbors like yourself.” But, in fact, to love my neighbors as myself is more difficult than to love God with all my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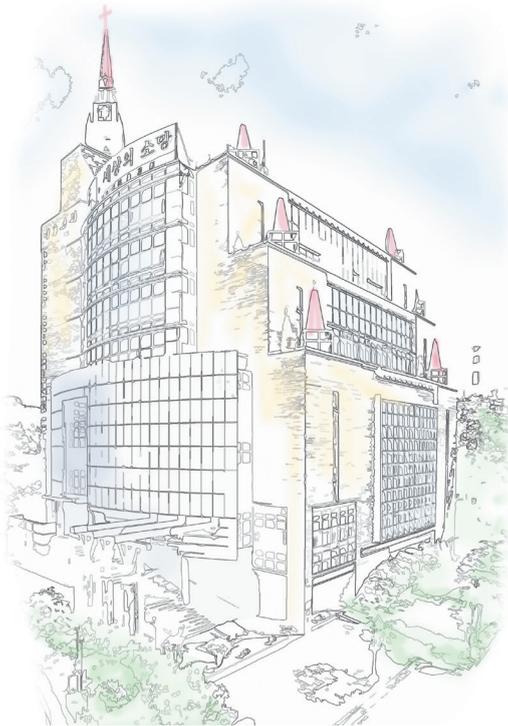
To love one’s neighbors like oneself can never be done by man’s power. Nevertheless, when our heart is following God his love overflows in us extending to our neighbors.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Rom 5:5).

That’s right. If God pours his love with emotion, work, and abundance of the spirit into our heart, because of his strong love, we are able to love our neighbors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My beloved Christians,

By meditating o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came to the earth in order to love us. We, like Jesus, should observe the greatest and the first commandment of which we love God and neighbors. By enjoying the Lord’s grace and blessing as much as you lik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5년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3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 웨스트민스터홀

강사: 이규민 교수(장신대)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17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는 이규민 목사(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를 초청하여 "다음세대의 위기 그리고 대안"(에스겔37:1~10)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 새가족위원회 교사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 바란다. 교사들을 위한 저녁식사는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준비된다.



이규민 교수 (장신대)

이규민 교수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B.A.)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Th.M. / Ph.D.)
- 계명대학교 신학과 학부 및 대학원 학과장 역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과장 역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역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장 역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

## 2015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10월 11일(주) - 교회학교별 / 본선: 10월 16일(금)

범위: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

2015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 16일(금)에 열릴 예정이다. 범위는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성도의 영성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귀한 일이다. 대회시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차근차근 암송하여 주제별로 선정된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 바란다. 예선은 10월 11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된다.

## 2015 하계 비전트립팀 팀원 모집

기간: 8월1일(토)~8일(토) / 인도 나가나할리



2015년 하계 비전트립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 사역지는 우상식(김정욱) 선교사가 사역하는 인도 나가나할리 교회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7박8일간이다. 지도는 서준권 목사, 단장은 박종권 집사이며 예상경비는 1인당 150만원이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3월 2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 3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3독> 1명 (3교구) 이봉규 권사
- <2독> 2명 (12교구) 박명석 권사 (13교구) 손성실 권사
- <1독> 15명 (4교구) 최종희 권사, 유기찬 집사 (6교구) 황보추자 권사 (7교구) 김수정 집사 (12교구) 장정화 권사 (13교구) 김경애 집사, 김선화 집사, 서영선 집사, 위현주 집사, 정호희 집사, 차인화 권사 (14교구) 배옥선 권사 (15교구) 노종렬 집사 (16교구) 임송자 권사 (고등부) 송인혁 학생

## 사랑부에서 미술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사랑부에서 수고하시던 미술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어 사랑부 지체들 미술교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매 주일 오전 9시-10시 까지 봉사해 주실 미술 선생님을 찾고 있으니 101호 사랑부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영곡집 출판



우리교회 박정선 장로(찬양위원장, 전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학장)가 「송영곡집(빛나라출판사)」을 출판하였다. 크리스찬 제자 작곡가들 13명이 함께 참여한 이 송영곡집은 입례송 44곡, 기도송 42곡, 축도송 17곡 등 총 103곡이 수록되었다.

B.M.W.운동  
동참합니다



Bus



Metro



Walking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1)

(문 161)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까?

(답) 레위기 19:18에서 인용된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계명의 사랑을 용납한다 존경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려는 이들도 있으나 성경이 가르친 자기사랑에 대한 말씀들과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전체에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딤후3:1-3) 따라서 자기사랑은 돈을 사랑하는 것 자명한 것 교만한 것과 같이 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악하다 한 것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사랑 사상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너는 정녕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자기사랑의 충동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자기사랑 자기이익의 영향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마22:39의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오히려 자기사랑과는 반대개념이며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권리를 찾듯 이웃의 것도 생각하라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웃을 위해 자기는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주님이 주신 황금률도 같은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랑도 이같이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상담학자들의 견해로는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자기를 부인하는 이에겐 감정적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공허감과 허탈감으로 실망하고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스스로 저주하며 상처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아 개념은 성경의 자기사랑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찾거나 자기사랑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 위해 자기를 바칠 수도 있게 되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방법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 학부모 기도회!



천세종 목사  
(고등부 담당)

서울교회는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치동을 “대한민국 사교육의 일번지”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건물의 얼굴은 00 학원이라는 간판으로 가려져 있고, 학원들이 끝나는 밤 10시가 되면 아침 출근 시간보다도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별천지”같은 곳이 대치동입니다. 이곳으로 이사오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대학입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가족 여행과 같은 삶의 여유로움을, 넓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포기합니다.

지난 2년간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감수하는 희생속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믿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 대치동에 서울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유명대학 진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매 주일 오후 12시 40분, 504호에서는 “학부모 기도회”가 열립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리더들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분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가장 확실한 것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대 세미나

# 예배위원으로서의 찬양대



찬양위원회(지도:박영준 목사, 위원장: 박정선 장로) 주관 찬양대세미나가 우리교회 10개 찬양대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0일(화)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렸다. 찬양대세미나는 찬양대원들의 영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연례 행사로 이 날은 (전)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교회 종교음악의 산 역사인 임영만 교수가 강사로 서 예배와 음악, 찬양대론,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음악

적 해석 등에 관하여 힘있게 강의했다. 이 날 임영만 교수는 찬양대원은 무엇보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며 예배의 충족 요건인 믿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며 교회는 예전적 예배를, 찬양대는 온 맘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의 경건한 믿음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순절의 기도

# 역설적 진리

이조은 성도(청년2부, 14교구)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잃어야 얻는다는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못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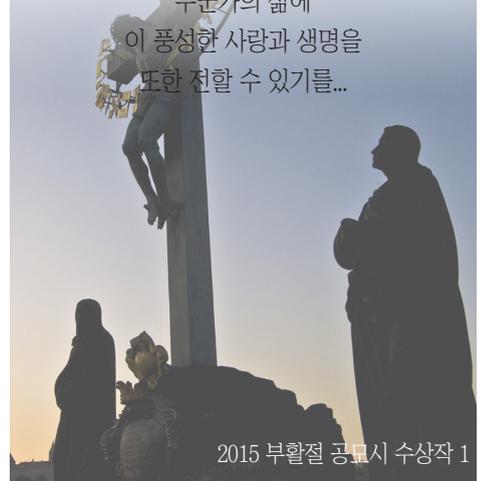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이  
나와 무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고 부활이었음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표류하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길을 내시고,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주님!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진리를 따라  
저도,

낮아지고 내어주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누군가의 삶에

이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2015 부활절 공모시 수상작 1



#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살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위원회, 도고팀원들께 문안드리며 긴급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이곳 마다가스카르에 지난 1월부터 태풍이 지난 후 홍수가 나고 계속적인 비로 이곳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타나의 논이 다 물에 잠겨 호수가 되었습니다. 집들도 침수되어 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기독교인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국가의 고난을 통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깨닫고 속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세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참 소망을 품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로 도로가 끊기고 다리가 파괴되어 저희가 예정하였던 2월과 3월의 오지진료를 갈 수가 없어 두 곳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고통 받는 안타나나리보 수도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2주간 의사역과 긴급 구제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드라누루 지역과 암파나도바나 지역. 의사역과 태양열전등과 쌀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팀을 이끌어가는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재훈 선교사와 박재연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벌써 한 달째 걸린 감기가 낫지를 않고 있네요. 이재훈 선교사의 당조절을 위해서 박재연 선교사의 목, 어깨 통증 감소를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서울교회 장학생인 이준행(한동대 3학년, 생명과학부와 경영), 이지행(한동대 1학년, 글로벌리더쉽학부)은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내 이진행은 케냐RVA에서 고1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주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막내 이진행은 최근에 목감기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이의 건강회복과 세 아이들의 학업의 진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늘 매주마다 마다가스카르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이곳에서 큰 능력이 되고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박재연 선교사 올림.

##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월16일(월) 미래한국사업 증자설명회 경건회시간에 설교한다. 17일(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회 이사회에 참석한다. 21일(토) 장로교신학회에서 설교한다.

■ 출간 : 16교구 임흥수 집사 「다시 찾은 천나이」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 선교회(3.15) 바울 선교회(3.22)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규태 집사 박미혜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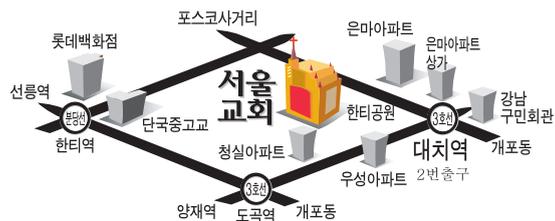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되도록
2.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화)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3.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교회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